3D 입체 카메라 렌즈 및 광학계

(주)프로옵틱스

회사소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위치한 (주)프로옵틱스(대표 정진호, www.prooptics.co.kr)는 2000년 설립된 이래 2008년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설립 이래 산업용광학계 설계 · 제작에 주력해온 프로옵틱스는 지난 2005년부터 3D산업에 진출,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나서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제품 특징 및 관련 시장 동향

프로옵틱스에서는 2005년부터 3D 입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수 요소인 카메라 렌즈와 이를 디스플레이 하는 입체 프로젝터 엔진을 개발해 왔다. 이미 고정초점렌즈 방식의 HDTV급 입체 렌즈 개발이력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광학설계 기술을 확보했다. 산업용 광학계 기술에 있어서는 일본, 미국, 독일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으로 국내에는 여타의 경쟁업체가 없다는 평을 받을 정도이다.

프로옵틱스는 지난 10월 열린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3D 카메라용 줌렌즈 및 3D DMD 프로젝터와 3D 복강경 카메라를 새롭게 선보였다. 프로옵틱스가 선보인 3D 줌렌즈는 2D(일반)카메라 2대를 사용하는 기존방식에 비해 기존 방송용 카메라 1대를 이용, 시분할적으로 3D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수한 성능은 물론 크기를 대폭 줄여 콤팩트한 크기에 제어가 간편하다.

3D 프로젝터는 1개의 투사렌즈와 2개의 DMD 패널을 사용하는 풀 HDTV급으로서 기존의 2대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여 1대의 프로젝터만으로도 고성능의 입체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3D 복강경 카메라 역시 1개의 렌즈에서 동분할 방식을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획득하는 프로옵틱스만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CMOS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다.

▶지난 10월 열린 한국전자전에서 3D 입체 복강경 카메라를 설명하는 정진호 대표

▶프로옵틱스의 3D 줌렌즈를 통해 1대의 방송용 카메라가 가능하다.